

세계 각국의 출판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출판의 글로벌화에 따라 저작권 시장의 다변화 경향이 눈에 띈다. <출판저널>은 국내 출판 문화계에 세계의 출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출판사에는 자생력 강화의 계기를, 독자에게는 출판의 국제적 흐름을 인식하는 계기를 주고자 한다. 지난호 중국·일본·대만의 출판동향에 이어 러시아, 미국, 프랑스, 독일의 생생한 출판정보를 소개한다.

안준모 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부

RUSSIA

러시아 도서시장의 총규모는 미화 10억 달러 규모이다. 2000년에 비해서는 25퍼센트의 성장을 하였으며, 금액으로는 8억 달러 정도였다. 연간 전체발행종수는 7만332종이다. 평균도서정가로 하드커버는 2.33달러, 페이퍼백은 1.17달러이다. 도서정가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세계저작권협정에 1994년, 베른 협약에 1994년에 가입했으며, 저작과 관련한 러시아 연방법이 1993년 9월 23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도서수출입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추측에 따르면 러시아 도서시장의 수출규모는 2000년에 300만 권, 2001년에 350만 권 정도였으며, 그 중 60퍼센트의 도서를 이웃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쉬 등으로 수출했다. 같은 해에 러시아는 450여만 권의 도서를 해외에서 수입하였다.

출판사 수는 6,500여 개, 서점 수는 6,000여 개이다. 러시아 도서유통협회의 정보에 따르면, 독립국가연합 내에서의 도서 판매는 2001년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서점이 45퍼센트, 출판사의 자체서점 15퍼센트, 간이판매대 등이 12퍼센트를 판매하고 있으며, 전체도서의 9.5퍼센트가 우편주문으로 판매되었고, 전체 출간종수의 10퍼센트가 외국에서 수입된 도서이다. 전체 판매도서의 6퍼센트를 도서관에서 구매하였으며, 슈퍼마켓 1퍼센트, 온라인을 통해 0.5퍼센트를 구매하였다.

U.S.A.

미국 도서시장의 2001년도 판매액은 253억 달러에 달했다. 주요 출판사들이 전체 판매액에서 63억 달러, 그 다음으로 논픽션 출판사들이 47억 달러, 교과서 및 학습참고 출판사들이 41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0.13퍼센트의 성장세를 보였다. 연간 전체발행종수는 13만5,000여 종이다. 평균도서정가는 하드커버가 26달러, 페이퍼백이 10달러이고, 도서정가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법은 세계저작권협약에 1955년, 베른조약에 1989

년 가입하였다. 2001년 미국도서의 수출액은 8.8퍼센트 하락하여, 17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전년에 비해 2.3퍼센트 증가한 16억 달러를 보이고 있다.

출판사 수는 2,884개, 전체 4,066개 서점 중 2,191개 서점이 미국출판협회 회원사이다. 2001년 미국의 도서관매는 전체도서에서 40퍼센트미만 가량이 유통시장에서 판매되었는데, 그 중 개별 서점들이 14.8퍼센트, 체인스토어 서점이 23.5퍼센트, 북클럽 20퍼센트, 온라인 판매 7.5퍼센트였다.

FRANCE

프랑스 도서시장의 2002년 판매액은 미화 48억 달러로 2001년 보다 4.5퍼센트 증가하였다. 신간발행종수는 4만5,000종이었고, 평균도서정가는 15달러로 나타났다.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도 잘 된다. 저작권 거래관련 통계와 도서수출입통계는 없다.

출판사 수는 3,600여 개이고, 서점 수는 800개사 27,000여 매장으로 나타났다. 도서관매는 20여 개 이상의 유통거점이 전국적으로 헤시트Hachette사에 의해 운영된다. 도서유통 21퍼센트, 슈퍼마켓 20퍼센트, 북클럽 15퍼센트, 신문가판대 판매 10퍼센트, 기타 6퍼센트를 보이고 있다.

GERMANY

독일 도서산업의 2001년 판매량은 9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1퍼센트의 하락을 보인 것이다. 무역, 기술, 과학분야 잡지는 특히 판매면에서 8.8퍼센트의 손실을 입었다. 실제로 도서관매는 0.9퍼센트가 늘어났지만, 2001년에 오프라인 서점의 판매량은 0.7퍼센트 하락하였고, 북클럽은 1.2퍼센트, 백화점은 0.9퍼센트, 역, 슈퍼마켓, 간이판매대 같은 판매점도 1.9퍼센트 하락하였다. 반면 우편주문 도서관매는 4.9퍼센트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온라인판매의 신장세에 기인하는데, 2000년과 비교하면 50퍼센트의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2,880만 달러의 실적을

보인다. 현재 온라인 도서판매는 전체 도서판매의 3퍼센트를 차지한다. 2001년에는 보다 많은 새로운 도서들이 독일도서시장에 선을 보였는데, 신간 6만8,399종, 재판 21,587종, 합계 8만9,986종이 출간되었으며, 2000년에 비해 8.5퍼센트가 늘어났다. 평균 도서정가는 하드커버 23.38달러, 페이퍼백 8.51달러이다. 2002년 1월 1일부터 도서정가제를 시행중이다.

저작권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베른협약에 1886년, 세계저작권협약에 1952년 가입했으며, 출판관계법은 1901년부터, 저작권법은 1965년부터 시행중이다. 2001년에 독일은 9,340종의 저작권을 수입했다. 그중에서 영미권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74.2퍼센트에 달한다. 2001년에 독일출판사들은 외국으로 5,337종의 저작권을 수출하였는데, 주요 수출대상 국가로는 스페인(445종), 대한민국(442종), 중국(403종), 이탈리아(373종), 체코(365종) 등이다. 도서수입은 2000년에는 1999년에 비해 5.7퍼센트 증가하여 6억1,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 중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수입 중에 16.1퍼센트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도서수출은 11억 달러가 조금 안되며 11.2퍼센트 상승하였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가장 중요한 수출 대상국가인데, 전체에서 40퍼센트를 차지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2000년에는 3,471개의 출판사가 영업활동을 했다. 독일출판서적상연합회는 2002년 4월 30일자로 6,751개사의 회원사가 등록돼 있다고 발표하였고, 그 중에서 4,661사가 도서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인데,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오프라인 서점들이다. 2001년에 오프라인 서점들은 판매면에서 0.7퍼센트 하락을 경험했다. 비록, 도매서점이 아직까지는 가장 주요한 도서 판매장으로서 전체 도서판매의 57.8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출판사들의 직접 도서판매는 전체 시장규모의 16.8퍼센트를 차지했다. 다른 중요한 판매루트로는 방문 및 우편주문판매(8.5퍼센트), 백화점(4.6퍼센트), 북클럽(3.6퍼센트), 기타(8.7퍼센트) 순이다. **◆◆**

러시아·미국·프랑스·독일 도서전 비교

★ 모스크바국제도서전

All-Russian Exhibition Centre에서 매년 9월에 개최된다. 2002년에는 9월 4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어 2,700여 개의 출판사와 서적상이 82개 국가로부터 참가하였다. 2만5,000m²의 전시장에 700여 부스를 설치하였으며, 10만여 종의 도서를 전시하였다. 모스크바국제도서전은 일반대중에게 도서판매가 허용되는 전시회이다.

★ 북엑스포아메리카

매년 미국의 다른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된다. 2003년에는 5월30일부터 6월 1일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되었다. 2002년에는 27개 국가에서 2,000여 출판사가 참여하여, 2만6,505m²에 달하는 전시장을 사용하였고, 2만9,559명의 출판관련 전문가들이 전시회를 찾았다. 북엑스포아메리카는 저작권중심으로 운영되는 도서전으로서 현장에서의 도서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 파리도서전

매년 3월에 개최되며, 2003년에는 3월21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었다. 도서전시회에서 현장판매가 이루어지며, 하루는 전문가의 날로 운영되고, 나머지 5일은 일반대중에게 개방된다. 2002년에는 1,212개 참가사가 25개 국가에서 참가하였으며, 전시장의 면적은 5만m²이고, 21만9,000명이 관람하였다.

★ 프랑크푸르트도서전

국제출판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행사로써, 매년 10월에 개최된다. 2003년에는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며, 2002년에는 17만4,000m²에 달하는 공간에 111개 국가에서 6,400여 참가사가 전시참가를 하였고, 관람객은 26만6,000명에 이르렀다. 도서전은 모두 6일간 진행되며, 출판관련 전문가들을 위해 운영되는데, 주말 2일 동안은 일반관람객에도 개방된다. 2003년부터는 전시회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 현장판매가 허용 된다.

★ 라이프치히도서전

국내적으로 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전시회로 매년 봄에 개최된다. 2002년에는 26개 국가에서 1,775개사가 참가하였고, 8만1,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라이프치히도서전은 순전히 일반대중을 위한 전시회로, 2004년에는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다.